

建設業의 現況과 景氣展望

具 進 謨

〈大韓建設協會 調査部長〉

I. 80年의 建設業景氣実像

80年中 國內建設景氣는 전반적인 韓國經濟가 그랬듯이 한마디로 沈滯局面이 지속된 한 해였다.

즉 80年度의 月別 建設業綜合景氣指數를 보면 例년에는 1월과 2월의 越冬期 이후 3월부터 本格的인 工事活動이 시작되었다고 하겠으나 금년에는 4월에 들어서야 平常水準인 100.0을 上廻, 107.1 수준에 이르러 79년 4월의 109.2에 接近하였을 뿐 5월부터는 經濟外的 要因이 가세, 雨期가 지난 후 8월까지 急降下하여 工事盛需期인 9월과 10월에야 미미한 上昇勢로 전환되었다가 11월부터는 다시 下向局面으로 反轉되었다.

이러한 建設業景氣不況의 遠因을 살펴보자.

年初에 80年度의 建設業景氣를 전망할 때 經常價格으로 工事受注規模를 79년의 2兆9,000億원에서 80年度에는 3兆4,000億원에 이를 것으로 豫測되었다. 왜냐하면 79年度 중에 2월부터 年末까지 6차례에 걸쳐 建築規制措置가 단계적으로 全面解除됨에 따라 80년도 1/4分期末부터는 建築景氣浮揚·雇傭增大效果 등을 크게 기대할 수 있어서 民間住宅部門의 건축 활동이 回生될 것으로 豫見되어 전체적으로 公共部門의 工事發注量과 함께 前年水準을 약 20% 정도 상회하리라고 豫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實像은 80年度에 들어서 1·12 및 1·29의 換率 및 金利引上和 油價의 大幅引上措置 등의 단행시기가 지난 해의 超財政緊縮의 실시 이후로 스태그플레이션의 促進, 都賣物價

上昇率은 78년 12.2% → 79년 23.8%로 등귀, 國內經濟成長率은 78년 11.6% → 79년 6.4%로 鈍化, 貿易收支赤字幅은 78년 18億弗 → 79년 44億弗로 擴大되는 등 내리막길 경제 상황 하에서 이루어져 모처럼의 民間部門의 주택 경기 부양이 死藏되었으며 企業으로부터의 設備投資姿縮으로 인하여 當初 豫測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80年度의 建設景氣實像을 79年度의 그것과 月別로 비교 분석한 景氣下降의 차이를 보면 1월에 6.8 포인트, 2월에 5.0 포인트, 3월에 186 포인트 그리고 4월은 前述한 바와 같이 2.1 포인트로 接近되다가 5월부터 7월까지의 각각 6.7포인트와 7.7포인트 그리고 11.1포인트로 완만한 隔差를 보이던 것이 8월부터는 18.0 포인트 그리고 9월에는 工事盛需期임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가 더욱 深化되어 32.3포인트로 擴大되었다.

다행히 10월에는 그 격차가 102포인트로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建設業景氣指數가 79년 10월에 平常水準을 上廻한 102.3과는 달리 80년 10월의 同指數는 92.1에 그쳐 平常水準을 下廻한데 큰 差異點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狀況은 建設業뿐만 아니라 他産業分野의 景氣動向을 分析하면 대개가 10월에 들어서야 生産 및 輸出增大 그리고 內需增大로 在庫減少, 稼動率向上 등 景氣最低水準에서 回復되는 비슷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建設業의 경우는 80年度 韓國經濟의 負의 成長, 高物價持續, 國際收支赤字幅의 擴大,

여기에 5월 이후 經濟外的 要因 등이 가세되어 國內需要의 전반적인 감퇴, 기업의 生産 및 販賣活動의 不振 등으로 計劃된 工場部門의 工事發注量이 留保 또는 取消가 續出한데 연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행히 政府에서는 6월부터 經濟難局(建設業의 경우는 80年度 月別 建設業綜合景氣指數가 每月 79年度 수준을 下廻)을 극복하기 위하여 通貨供給擴大, 7월에는 中小企業의 資金支援 등이 실시되었다.

II. 建設業景氣浮揚策

8월에 實施

建設業은 8월부터 本格的인 景氣浮揚策이 시작되었는데

- ① 建設勞賃單價引上(9월 1日 施行)
- ② 工事入札保證金引下(12월 5日 施行)
- ③ 工事先金給支給對象範圍擴大(12월 5日 施行)
- ④ 企業會計方式에 의한 豫定價格作成準則의 改正(10월 1日 施行)
- ⑤ 工事技術補償制度(12월 5日 施行) 등에 關한 발표가 그것이다.

9월에는 다시 全産業의 經濟活性化 도모를 위한 景氣浮揚策으로서

- ⑥ 貸出金利引下
- ⑦ 不動産讓渡所得稅의 緩和
- ⑧ 住宅建設業體의 資金支援
- ⑨ 住宅難解消의 장기 계획으로 저렴한 住宅供給과 주택 실수요자에 長期割賦로 福祉住宅을 공급하기 위하여 81년부터 10個年 동안에 500萬戶의 住宅建設計劃樹立과 이에

관한 후속 조치 進行

또한 企業體質強化對策으로 11월에는

- ⑩ 金利再引下
- ⑪ 企業法人稅負擔緩和
- ⑫ 讓渡所得稅의 緩和調整 등이 施行되었다.

이러한 一聯의 經濟措置는 韓國經濟의 景氣回復을 短時日內에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下向趨勢의 景氣局面을 멈추게 하고 도약 단계로의 추진력을 培養할 것으로 보인다.

建設業과 關連한 經濟措置의 배경과 그 效果를 檢討하여 보자.

80年度의 主要建設經濟指標를 分期別로 79年度와 比較하면 工事受注는 1/4分期에 103.2%, 2/4分期에 150.3%의 수준으로 오히려 80年度가 優位에 있었으나 3/4分期에는 69.0% 수준으로 急降下되었으며 建築許可面積의 경우도 1/4分期에 133.7%, 2/4分期에 103.9%의 수준이었던 것이 3/4分期에는 79.9% 수준으로 저하되었다.

物量面으로 본 建設資材消費量은 시멘트는 2/4分期에 92.1%를 유지하던 것이 3/4分期에는 79.3% 수준에 그쳤고 鐵筋消費量은 2/4分期의 99.7% 수준에서 3/4分期에는 89.3%로 需要減退現象을 보이고 있으며 合板의 경우는 2/4分期의 63.3%水準에서 3/4分期에는 68.0% 수준으로 增大되기는 하였으나 1/4分期의 83.9% 수준과 比較하면 크게 減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80年度의 各種 主要建設經濟指標가 3/4分期에 크게 低下되고 있는데 反하여 工事費用은 80年度에 들어서 1/4分期에 19.0%가 上昇되었으며 2/4分期의 騰貴率은 4.1%로 鈍化되다가 3/4分期에는 0.2%의 上昇에 그쳐

<表-1>

主要建設經濟指標比較分析

區 分	1/4 分 期			2/4 分 期			3/4 分 期		
	79	80	前年比 (%)	79	80	前年比 (%)	79	80	前年比 (%)
工事受注(億圓)	4,036	4,167	103.2	7,046	10,589	150.3	10,646	7,346	69.0
建築許可面積(千 m ²)	5,125	6,582	133.7	7,508	7,803	103.9	7,875	6,292	79.9
시멘트使用量(千 m ³ /t)	3,395	1,963	57.8	4,164	3,837	92.1	4,322	3,426	79.3
鐵筋使用量(千 m ³ /t)	339	321	94.7	374	373	99.7	328	293	89.3
合板使用量(千 s/f)	670	562	83.9	682	432	63.3	587	399	68.0

工事物量の 不況으로 인한 資材消費減少와 건설 현장 雇傭人員의 減員 그리고 現場勞賃上昇을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關聯業界의 在庫累増 등이 3/4 分期의 建設業不況을 단적으로 立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0 月中의 建設經濟指標를 보면 前月에 비하여 工事受注額과 建築許可面積은 각각 1.6%와 6.0%가 감소되고 있으나 物量面의 資材消費量에 있어서는 前月에 비하여 시멘트가 20.8%, 鐵筋은 19.8% 그리고 合板은 9.4%의 消費增加를 나타내고 있어 10 月 中の 工事活動이 季節的으로 盛需期인 點도 있겠으나 다소 활발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80 年度 10 月까지의 經濟指標別 累計(1 月~10 月)를 79 年の 同期間과 比較하면 工事受注額은 名目上으로 1.4%가 增加되었고 建築許可面積은 79 年度 實績을 유지하고 있으며 資材消費量은 시멘트 19.5%, 鐵筋 6.0%, 合板 19.4%가 각각 감소된 消費實績을 나타내고 있

으나 3/4 分期의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改善된 實績을 보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80 年度中의 建設業景氣를 綜合하여 볼 때 全般的인 國內景氣沈滯로 建設業景氣도 크게 萎縮되었는데 3/4 分期中의 最低水準에서 10 월에 들어서야 回復勢로 反轉되기는 하였으나 79 年度에 비하면 20~25% 정도가 未達한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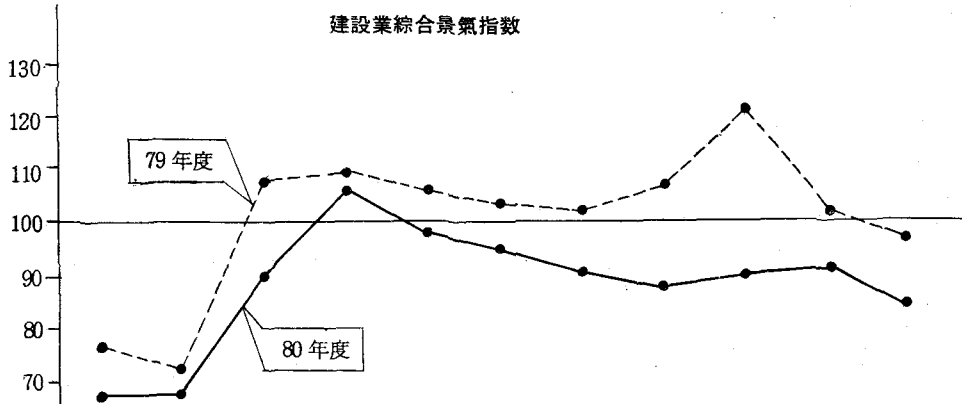
Ⅲ. 81 年度 建設業景氣展望

81 年度의 世界經濟가 油價引上要因이 常存한 채 景氣沈滯로 인플레이 壓力과 貿易伸張勢가 鈍化될 것으로 展望됨에 따라 國內經濟는 GNP 成長率을 75 年 不變市場價格基準으로 4~5%로 計劃하고 있으며 특히 81 年 下半期에는 正常的인 經濟回復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經濟規模를 근거로 하여 建設業과 關

<表-2>

建設業綜合景氣指數



區 分	80年 1月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잠정) 10月	(전망) 11月
綜合指數	68.3	68.3	90.0	107.1	99.2	96.4	92.0	89.0	90.5	92.1	86.5
工事受注	20.2	52.2	55.1	134.1	90.0	93.7	89.4	65.1	70.4	69.3	64.4
建築許可面積	74.0	89.5	139.3	140.5	135.5	101.2	99.3	99.9	104.9	98.6	93.1
資材需要	89.3	49.3	67.3	91.4	98.4	87.8	81.1	80.5	74.9	90.6	77.9
建設雇傭	30.3	41.3	92.7	92.7	77.2	88.6	85.8	75.0	79.6	76.3	71.6
工事費用	101.4	107.0	119.0	121.2	123.3	123.9	122.7	123.6	124.2	124.7	126.4
建設株式	114.9	103.9	100.6	102.1	101.4	97.6	101.2	103.0	108.4	105.0	104.1
資材動向	50.8	49.0	93.8	109.9	114.9	130.4	109.8	123.1	119.5	129.7	120.9
79年綜合指數	75.1	73.3	108.6	109.2	105.9	104.1	103.1	107.0	122.8	102.3	94.5

聯된 여러가지 現況을 토대로 81年度の 建設業 景氣를 展望해 보면

1. 1981年度에도 油類 및 海外原資材價格의 再引上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으므로 각종 建設資材의 原價上昇壓力이 常存함에 따라 工事費上 昇으로 인한 工事發注者側의 資金事情 때문에 受注産業인 建設業 역시 不透明할 것으로 보이 나 다만 80年度の 諸經濟措置의 期待效果 여하에 달려 있다.

2. 1981年度 國內建設工事 規模는 약 4兆 1,000億원 内外로 豫測되어 80年度の 약 3兆 원 内外에 비하면 物價上昇率을 제거시킨다 해도 약 10% 정도의 實質成長을 기대할 수 있다.

즉 81年度の 國內工事量을 計量的으로 豫測한 결과는 GNP 成長率 4~5%, 物價上昇率 22%로 前提하면 民間部門工事は 多少 回生, 80년 수준보다는 上昇 기미를 엿볼 수 있으며 政府 및 公共部門의 그것은 80년 수준은 유지 될 것으로 豫測되어 79년에서 80年度로 이어진 建設業不況局面이 81年度에는 回復勢로 反轉될 것으로 보여진다.

3. 1981年度 國民總生産額은 經常價格으로 약 45兆원으로 推計되어 例年の 國內工事 受注額이 차지하는 比重을 감안하면 工事受注額은 80年度에 비하여 經常으로 40% 정도는 增加할 것으로 보인다.

4. 한편으로는 1981年度 經濟政策이 増進의 成長爲主에서 經濟安定化 및 民生福祉施策에 바탕을 둘 것이므로 79~80年度와 같은 超財政緊縮은 다소 緩和될 可能性은 보이나 民間企業의 設備投資에 의한 工事物量은 크게 增大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80년 1월부터 換率引上과 함께 換率流動化 실시 이후 換率上昇이 輸出의 促進과 輸入抑制을 통한 國際收支改善效果를 가져오는 반면에 國內物價上昇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企業의 換差損負擔을 加重, 필연적으로 輸入原資材의 購入單價上昇을 초래할 것이므로 輸入物量의 增加率을 鈍化시키는 결과로 企業의 工場施設擴大(工事物量)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5. 80年度 8월에 발표된 福祉住宅 50萬戶의 建設計劃과 이의 後續措置가 進行되고 있으

며 初年度事業이 1981년에 시작되면서 30萬戶의 新規住宅이 發注된다면 官·民의 住宅事業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6. 1981年度 建設業界는 政府의 景氣浮揚策에 의한 資金負擔緩和에 힘입어 工事入札保證金の 50%引下, 工事先金給支給을 從前的 2,000萬원 이상 工事에서 1,000萬원 이상 工事로 支給對象範圍를 擴大, 建設工事의 技術補償制度 등을 受惠받게 되므로 資金運用上 支給利子部門이 輕減될 것이다.

7. 1981年度 政府部門의 施設工事は 가능한 早期執行될 計劃이므로 3월부터는 工事活動이 활발, 建設業이 景氣浮揚의 先導役割을 담당할 것이다.

8. 지난 80年度에는 不況으로 인한 工事物量 確保가 어려워 政府·公共部門工事に 덤핑 投札이 성행하였는 바 80년 12월부터 施行되는 建設業界 淨化運動이 1981년에 활발히 展開될 것으로 보여 誠實施工과 제값받는 風土助成으로 建設業經營의 採算性 改善에 寄與할 것이다.

이상의 열거한 諸假定 및 狀況은 81年中의 物價와 油價 및 換率과 國際收支 등 經濟安定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受注立場의 建設業界뿐만 아니라 建設業과 關聯된 모든 産業分野와 工事發注側이 共同으로 노력할 課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建設業은 過去 10年間 國內建設業의 年平均 成長率이 37%에 달하였으나 1980년에는 하나의 고비라고 할 만큼 年初부터 어려운 상황에서 7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成長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建設業은 우리나라 産業構造가 앞으로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한 先進國型으로 發展될 것이며 輸出增大와 社會福祉 특히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이 강조될 것이므로 建設業은 또한 꾸준히 伸張될 것이다.

이러한 展望은 國民經濟的 立場에서도 쉽게 헤아릴 수 있는 것으로서 GNP에 차지하는 建設業比重이 60年代의 2~3%에서 現在는 6%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80年代 中반부터는 8~10%까지 擴大될 것이며 建設雇傭比率도 같은 수준으로 雇傭誘發效果가 기대되어 建設業의 重要性이 점차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確信되기 때문이다.